

新羅의 築城事業과 築城術

朴相侗*

목 차

- | | |
|----------------------|--------|
| I. 머리말 | 1. 木柵城 |
| II. 『三國史記』新羅本紀의 築城記事 | 2. 土城 |
| III. 新羅 城郭의 築城位置 | 3. 石城 |
| IV. 新羅의 築城工法 | V. 맺음말 |

I. 머리말

우리나라는 일찌기 梁誠之가 “城郭의 나라”¹⁾라고 하였듯이 많은 城郭이 축조되었다. 성곽은 축조당시의 時代相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國家의 形成과 發展段階, 그리고 防禦體系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遺蹟이다. 文獻上으로는 『史記』, 『漢書』 및 『三國志』에서 우리나라 성곽의 起源問題를 살펴볼 수 있다. 漢武帝가 衛氏朝鮮을 공격할 때에 王儉城에서 1年餘를 저항하였는데, 이때의 王儉城은 산세가 매우 험하였던 것으로 보아²⁾ 山城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으며, 중국의 성곽이 일반적으로 平地城인 점과 비교된다. 즉 한국성곽의 기원은 山城에 있으며, 이것은 山地가 많은 한국의 地形的 특성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三國志』 夫餘傳에는 “國有故城名濊城”³⁾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高句麗傳에는 “此城爲幘溝漚, 漚者, 句麗名城也”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東沃沮傳에는 “以沃沮城爲玄菟郡”, “分置東部都尉, 治不耐城”, “北沃沮一名置溝漚”⁵⁾고 하여 이 시기에 城郭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한 韓傳의 앞부분에서는 馬韓에 “無城郭”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후반부에서는 “其國中有所爲及官家使築城郭”이라고 하여⁶⁾ 城郭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辰韓에는 “有城柵”⁷⁾

* 淸州大學校 博物館 研究員

1) 『世祖實錄』 卷3, 世祖 2年 3月 丁酉條.

2) 『史記』 卷115, 朝鮮列傳.
『漢書』 卷95, 朝鮮傳.

3) 『三國志』 卷30, 夫餘傳.

4) 『앞 책』(주3), 같은 卷, 高句麗傳.

5) 『앞 책』(주3), 같은 卷, 東沃沮傳.

이라 하였고, 弁辰에는 “亦有城郭”⁸⁾이라 하여 성곽이 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삼국시대 이전의 城郭 또는 城柵이 어떠한 형태·규모였는지는 아직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최근에 松菊里와 같은 몇몇 유적에서 住居址群을 둘러싸고 木柵 또는 環壕를 시설한 것이 조사되어 대략 청동기시대부터 방어시설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성곽은 古朝鮮부터 축조되기 시작하여 삼국시대에 더욱 발전하였는데, 三國 가운데 築城事業이 가장 활발하였던 나라는 高句麗이나 百濟와 新羅에서도 이에 못지 않게 많은 성곽을 축조하였으며, 특히 신라는 三國統一의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성곽을 축조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삼국시대의 산성을 후대에 다시 고쳐 쌓아 이용한 경우도 있지만, 高麗·朝鮮時代 城郭의 대부분은 각지방의 治所에 쌓은 邑城과, 이들 邑城의 배후에 부속적으로 쌓은 山城이다. 그리고 축성술은 계속 발전하여 조선후기 正祖代에 축성한 水原 華城은 축성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新羅의 城郭에 대하여 『三國史記』 新羅本紀의 築城記事를 분석하는 한편 현존하는 성곽들을 통하여 신라 성곽의 몇가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三國史記』 新羅本紀의 築城記事

『三國史記』는 한국고대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기본사료이다. 삼국시대의 역사를 이보다 자세히 기록한 문헌은 없다. 따라서 삼국시대 성곽에 대한 연구도 현장조사와 함께 『三國史記』의 기사를 분석하는 문헌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三國史記』에는 축성관련 기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百濟本紀 가운데 溫祚王代는 46년의 在位期間中 11회의 축성관련 기사가 나온다. 新羅本紀에서도 慈悲麻立干代에는 6회, 炤知麻立干代에도 역시 6회의 축성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慈悲麻立干代에는 西北邊境인 忠北 報恩에 3년이나 걸려 三年山城을 축조하였다고 하였으니, 각 나라마다 城役に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⁹⁾

삼국시대의 국방은 산성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이를 위해 쏟는 국가의 정열은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城役을 위한 人力動員은 어떠한 형태로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하에서만 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토목공사를 위한 인력동원과 국방을 위한 戰爭隨行을 동양의 전제왕국형성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6) 『앞 책』(주3), 같은 卷, 韓傳.

7) 위와 같음.

8) 위와 같음.

9)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第3, 慈悲麻立干 13年條.

“築三年山城 三年者 自興役始終三年訖功 故名之”

이러한 관점에서 『三國史記』新羅本紀에 기록된 축성관계 기사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신라의 발전과정 및 대외관계, 방어체계 등과 築城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三國史記』新羅本紀에서 축성관계 기사만을 뽑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赫居世 21年(B.C 37) : 築京城號曰金城
2. 婆娑尼師今 8年(87) 秋7月 : 下令曰 朕以不德 有此國家 西鄰百濟 南接加耶 德不能綏 威不足畏 宜繕葺城壘 以待侵軼 是月 築加召·馬頭二城
3. 婆娑尼師今 22年(101) 春2月 : 築城名月城 秋七月 王移居月城
4. 祇摩尼師今 10年(121) 2月 : 築大甌山城
5. 逸聖尼師今 7年(140) 春2月 : 立柵長嶺 以防鞞鞞
6. 奈解尼師今 29年(224) 8月 : 築烽山城
7. 沾解尼師今 15年(261) 春2月 : 築達伐城 以奈麻克宗爲城主
8. 儒禮尼師今 10年(293) 春2月 : 改築沙道城 移沙伐州豪民八十餘家
9. 慈悲麻立干 6年(463) 春2月 : 王以倭人屢侵疆場 緣邊築二城
10. 慈悲麻立干 11年(468) 秋9月 : 徵何瑟羅人年十五已上 築城於泥河 (泥河一名泥川)
11. 慈悲麻立干 13年(470) : 築三年山城 (三年者 自興役始終三年訖功 故名之)
12. 慈悲麻立干 14年(471) 春2月 : 築笔老城
13. 慈悲麻立干 16年(473) 秋7月 : 葺明活城
14. 慈悲麻立干 17年(474) : 築一牟·沙尸·廣石·沓達·仇禮·坐羅等城
15. 炤知麻立干 7年(485) 春2月 : 築仇伐城
16. 炤知麻立干 8年(486) 春正月 : 拜伊滄實竹爲將軍 徵一善界丁夫三千 改築三年·屈山二城
17. 炤知麻立干 9年(487) 秋7月 : 葺月城
18. 炤知麻立干 10年(488) 秋7月 : 築刀那城
19. 炤知麻立干 12年(490) 春2月 : 重築鄙羅城
20. 智證麻立干 5年(504) 秋9月 : 徵役夫 築波里·彌實·珍德·骨火等十二城
21. 法興王 5年(518) 春2月 : 築株山城
22. 眞興王 11年(550) 3月 : 高句麗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波 命伊滄異斯夫出兵擊之 取二城 增築留甲士一千戌之
23. 眞興王 15年(554) 秋7月 : 修築明活城
24. 眞智王 2年(577) 冬10月 : 築內利西城
25. 眞平王 13年(591) 秋7月 : 築南山城 (周二千八百五十四步)
26. 眞平王 15年(593) 秋7月 : 改築明活城 (周三千步) 西兄山城 (周二千步)
27. 眞平王 48年(626) 8月 : 築高墟城

28. 太宗武烈王 3年(656) : 金仁問自唐歸 遂任軍主 監築獐山城
29. 文武王 元年(661) 9月 : 築熊峴城
30. 文武王 3年(663) 春正月 : 作長倉於南山新城 築富山城
31. 文武王 12年(672) 8月 : 築漢山州畫長城 (周四千三百六十步)
32. 文武王 13年(673) 2月 : 增築西兄山城
33. 文武王 13年(673) 8月 : 增築沙熱山城
34. 文武王 13年(673) 9月 : 築國原城(古亂長城)·北兄山城·召文城·耳山城·首若州走壤城(一名迭巖城)·達舍郡主岑城·居烈州萬興寺山城·歆良州骨爭峴城
35. 文武王 15年(675) 秋9月 : 緣安北河設關城 又築鐵關城
36. 文武王 19年(679) 秋8月 : 增築南山城
37. 神文王 7年(687) 秋 : 築沙伐·歆良二州城
38. 神文王 9年(689) 9月 : 築西原京城
39. 神文王 11年(691) 春3月 : 築南原城
40. 孝昭王 3年(694) 冬 : 築松岳·牛岑二城
41. 聖德王 12年(713) 12月 : 築開城
42. 聖德王 17年(718) 冬10月 : 築漢山州都督管內諸城
43. 聖德王 20年(721) 秋7月 : 徵何瑟羅道丁夫二千 築長城於北境
44. 聖德王 21年(722) 冬10月 : 築毛伐郡城 以遮日本賊路
45. 景德王 21年(762) 夏5月 : 築五谷·鶻巖·漢城·獐塞·池城·德谷六城
46. 憲德王 18年(826) 秋7月 : 命牛岑太守白永 徵漢山北諸州郡人一萬 築涇江長城三百里
47. 景順王 2年(928) 秋8月 : 築城於陽山

이상은 『三國史記』의 新羅本紀에서만 간추린 築城記事로 모두 47회 74件이다. 이 가운데 삼국통일 이전 삼국시대만의 築城記事는 30회 42件인데, 都城과 관련된 것이 2회이고 나머지는 모두 山城과 관련되어 있다. 이밖에 『三國史記』에는 수많은 城郭의 명칭들과 관련된 사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都城防衛 및 都城의 偏在性을 克服하기 위한 努力이다. 新羅가 B.C 57년에 建國되어 935년에 멸망하기까지 약 1천년 동안 慶州에 都邑을 두었다. 고대국가의 都邑들은 일반적으로 큰 河川을 끼고 있으나 경주는 중요한 河川이 없고 交通도 불편한 山間의 한 僻地에 불과하다. 그런데 신라가 王都를 경주에 계속 두었던 것은 慶州가 국가의 발상지로서 버리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고, 또 주위의 山岳은 自然의 城郭(羅城)을 이루어 都城防衛에 유리한 곳이다. 高句麗의 都城 및 百濟의 泗泚城의 주위에는 견고하게 설측된 羅城이 있으나, 경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자연의 羅城이 慶州를 포위한 東·西·南·北의 山에 각각 明活山城·西兄山城(仙桃山城)·南山新城·北兄山城

이 축조되어 있어 都城을 보호하고 있다.

『三國史記』新羅本紀의 築城記事를 세기별로 분석해 보면, B.C 1세기에 1회, A.D 1세기에 1회, 2세기에 3회, 3세기에 3회, 4세기에는 城役이 없었고, 5세기에 11회, 6세기에 7회, 7세기에 14회, 8세기에 5회, 9세기에 1회, 10세기에 1회의 築城 또는 増改築이 있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4세기를 중심으로하여 그 이전에는 8회에 불과하지만, 그 이후에는 매우 많은 축성기사가 보인다는 사실이다.

신라의 축성에 대하여 兪元載 교수는 ① 建國期の 築城, ② 5, 6세기의 對百濟, 靺鞨, 加耶, 倭의 築城, ③ 統一以後 地方制度 整備 過程上의 築城, ④ 北方 國境에의 築城 등 4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한 바 있다.¹⁰⁾ 兪 교수가 分析考察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新羅의 축성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 최초의 都城인 金城은 始祖 赫居世 21년(B.C 37)에 축조되었다. 金城은 현재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알 수 없으나, 『東史綱目』에 “在今慶州府東四里 長三千七十五步 廣三千一十八步”라 하였고, 『東京雜記』에는 “土築 周二千四百七尺”이라 한 것으로 보아 대략 지금의 경주 芬寺寺 북쪽 關川 流域에 있었으며, 그 규모는 둘레가 2,407尺 즉 750m인 작은 平地土城이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新羅初期의 金城은 규모가 큰 都城이었다기 보다는 宮殿을 둘러싼 담장 정도의 미미한 시설물로서,¹¹⁾ 城內에는 宮室과 여러 官衙가 있었을 것이고, 일반 백성들은 城外에 모여사는 일종의 城邑國家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婆娑尼師今 8년(87)에는 百濟와 加耶에 대비하여 加召城과 馬頭城을 축조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위치는 현재 알 수 없으나 규모가 작은 土城이나 木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후 新羅에서는 2, 3세기를 지나는 동안 6회에 이르는 城役이 있었다. 신라가 古代國家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2, 3세기는 주변의 諸勢力을 흡수하는 시기로 보인다. 즉 2세기의 婆娑尼師今代에 이르러 적극적인 征服活動을 전개하여 音汁伐國, 悉直國, 比只國, 草八國, 屈河火村 등을 정복하였으며, 逸聖尼師今 7년(140) 春2月에는 長嶺柵을 축조하여 “靺鞨”이라 기록된 東濊勢力에 대비하였다. 뿐만 아니라 沾解尼師今 15년(261) 春2月에 達伐城을 축조하고 奈麻인 克宗으로 城主를 삼았으며, 儒禮尼師今 10년(293) 春2月에 沙道城을 개축하고, 沙伐州의 80餘家를 移住시킨 사실들은 주변의 征服過程에서 征服地에 대한 조치에서 비롯된 일련의 築城이었다고 생각된다.

城役이 없었던 4세기를 지나, 5세기는 新羅 慈悲麻立干과 炤知麻立干代에 해당되며, 이전에 행하여진 주변세력의 정복을 통하여 국경을 접하게 된 百濟, 靺鞨과 좁은 海峽을 사이에 둔 倭에 대한 적극적인 防禦와 領土擴張의 문제가 대두된 시기이다. 당시의 靺鞨은 곧 東濊勢力을 말한다.¹²⁾ 慈悲麻立干 11년(468)에 高句麗와 합세한 靺鞨兵 1萬이 신라의 北邊 悉直

10) 兪元載, 1993. 「三國의 築城」, 『大田의 城郭』(大田直轄市) pp.45~77.

11) 尹武炳, 1972. 「歷史都市慶州의 保存에 대한 調査」, 『文化財의 科學的保存에 關한 研究 I』(科學技術處).

地方을 공격한 사실¹³⁾이 있는데, 悉直은 곧 지금의 江原道 三陟을 가리키는 것으로,¹⁴⁾ 당시 신라와 말갈(동예)은 三陟地方을 경계로 서로 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炤知麻立干 2년(480)과 3년(481)에도 계속하여 말갈과 고구려가 침략해 오자, 신라는 백제와 가야에 援兵을 청하였으며, 그 결과 고구려와 말갈의 세력을 패퇴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北邊에서는 말갈을 앞장세운 고구려의 압력이 가중되던 시기였으며, 그 규모 또한 확대되어 신라로서는 백제나 가야에 請兵을 해야 했다. 이와같은 상황에 처하였던 관계로 신라에서는 慈悲麻立干 11년(468) 秋9월에 15세 이상의 何瑟羅人을 동원하여 泥河城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倭에 대한 防禦策으로 慈悲麻立干 6년(463) 春2월에 沿邊에 2개의 城을 築造하였으며, 炤知麻立干 15년(493)에도 臨海鎮과 長嶺鎮을 축조하여 倭賊에 대비하였다.¹⁵⁾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慈悲麻立干 13년(470)에 三年山城을 축조하고, 炤知麻立干 8년(486) 春正月에 一善(지금의 善山)지방의 丁夫 3,000명을 동원하여 三年山城과 屈山城을 改築한 사실이다. 三年山城을 축조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城役이 얼마나 중요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一善(善山)의 壯丁 3,000명을 동원한 것으로 보아도 더욱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이는 당시 報恩·靑山·沃川地方을 중심으로 하여 百濟와 國境이 형성되어 있었고, 報恩과 靑山은 歷史地理的으로 볼때 淸州, 鎭川, 利川, 漢江下流를 거쳐 韓半島 北部로 진입하는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沃川을 거쳐 百濟의 首都였던 公州, 扶餘에 진입할 수도 있었던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결국 이때에 이르러 新羅는 報恩地方에 西北方으로 進出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慈悲麻立干 17년(474)에 一牟·沙尸·廣石·沓達·仇禮·坐羅城을 축성한 기사가 주목된다. 이것은 주로 가야에 대비하여 축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5세기에 많은 축성을 하였던 이유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갈(동예), 백제, 왜, 가야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가 국방을 위하여 국가적 대사업으로 추진한 山城築造는 5세기부터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것은 신라가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 후 6세기에는 7회의 城役이 있었다. 新羅史에서 6세기는 法興王代에 가야를 정벌하고, 眞興王代에 北方進出을 이루어 그 세력을 확장하였던 발전시기였다. 이것은 前代부터 부단히 계속된 築城과 國防을 위한 努力에 따른 결과이다.

계속하여 眞興王 15년(554) 秋7월에 明活山城을 修築하고, 眞平王 13년(591) 秋7월에 南山城을 築造하고, 眞平王 15년(593) 秋7월에 明活山城과 西兄山城을 改築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

12) 俞元載, 1979. 「三國史記僞蘇鞞考」 『史學研究』 29輯.

13)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第3 慈悲麻立干 11年條.

『위 책』, 卷18, 高句麗本紀 第6 長壽王 55年條.

1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三陟都護府 沿革條.

15)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第3 炤知麻立干 15年 7月條.

되었다. 비록 慶州에는 都城 防禦를 위한 羅城은 축조되지 않았으나, 이 시기에 축조된 慶州 周邊의 山城들은 羅城의 役割을 충분히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6세기말에 이르러서야 신라는 首都의 防備를 위한 보다 強化된 防禦體制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통일을 실현한 신라는 산성의 축조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文武王 3년(663)에 富山城을 축조하고, 13년(673)에 西兄山城을 增築하고, 北兄山城을 축조하고, 文武王 19년(679)에 南山城을 증축하는 등의 都城防禦를 강화하였으며, 이밖에 漢山州 畫長城, 沙熱山城, 國原城(古亂長城), 召文城, 耳山城, 首若州走壤城(一名迭巖城), 達舍郡主岑城, 居烈州萬興寺山城, 敵良州骨爭峴城, 鐵關城 등의 많은 산성들을 축조하였다. 神文王代에는 沙伐城, 敵良城, 西原京城, 南原城 등의 州, 小京城이 축조되었다. 이것은 새로 편입된 영토에 대한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와함께 文武王 21년(681)에는 도성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高僧 義相의 반대로 못하였고,¹⁶⁾ 神文王代에도 達句伐(大邱)로 수도를 옮기려 하였으나 역시 이루지 못하였다. 비록 兩代에 걸쳐 都城의 新築이나 遷都는 이루지 못하였으나 새로운 首都의 經營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唐制를 모방한 坊里制를 실시하고, 또한 북쪽에 王宮을 세우고 그 앞으로 南北大路를 開設하여 都城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던 듯하다.

8세기 이후에는 주로 北方 國境地域에서 城役이 많이 있었다. 聖德王 12년(713)에는 開城을 축조하고, 17년(718)에는 漢山州 管內의 諸城을 修築하였다. 그리고 20년(721)에는 何瑟羅의 丁夫 2千을 동원하여 北境에 長城 300里을 축조하였고, 21년(722)에는 毛伐郡城을 축조하여 倭賊路를 차단하였다. 또한 景德王 21년(762)에는 五穀·鶻巖·漢城·獐塞·池城·德谷 등의 6城을 축조하였으며, 憲德王 18년(826)에는 漢山北 諸州郡에서 一萬名을 동원하여 長城 300里를 축조하였다. 모두 북방의 방어를 위하여 축성한 것이다. 삼국통일을 성취한 이후에는 주로 唐과 渤海에 대비하여 주로 북방에서만 城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다시 정리해 보면, 신라의 축성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축성의 성격도 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대체로 4期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1期는 建國期の 築城事業이었으며, 2期는 5~6世紀의 百濟, 靺鞨(東濊), 加耶, 倭에 防禦하기 위한 築城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3期는 三國을 統一한 以後 地方制度를 整備하는 過程에서 築城사업이 있었으며, 4期는 統一以後에 北境地域을 防備한 築城이 주류를 이루었다.¹⁷⁾

이처럼 『三國史記』의 築城記事만을 가지고 築城時期를 구분해 보더라도, 2期와 3期에 城役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城郭 본연의 기능인 外敵방어와 함께 지방 제도의 정비과정에 있어서도 성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6)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 第7 文武王 21年 6月條.

17) 俞元載, 1993. 「三國의 築城」, 『大田의 城郭』(大田直轄市) p.55.

Ⅲ. 新羅 城郭의 築城位置

성곽을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축조하는가 하는 문제는 성곽의防禦力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어서, 外敵이 쳐들어오기는 어렵고, 敵을 攻擊하는데는 유리한 자연지세를 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삼국시대의 성곽은 군사지리적인 요충지 및 都城이나 중요한 地方都市의 防禦에 유리한 山上 또는 江岸·海岸에 축성하였다.

그런데 고문헌기록에서는 축성위치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단지 훨씬 후대인 조선 시대에 壬辰倭亂을 겪은 후에 산성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실감하고 나서, 삼국시대와 같이 험준한 산에 의지하여 關城을 축조하고 山城을 修築할 것을 論議하기도 하였다.¹⁸⁾ 그리고 현존하는 성곽들을 보면 대부분이 平原을 앞에 둔 높은 山上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平原을 건너오는 敵軍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防禦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平原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山中에 축성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外部와 단절된 天險을 이용하여 持久戰을 펼치려는 의도에서이다.¹⁹⁾

신라의 성곽은 都城 또는 山城의 立地條件이 대체로 고구려·백제와 비슷하나, 都城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신라의 도성은 신라가 건국된 후 멸망할 때까지 거의 1,000년 동안이나 경주에 있었다. 고구려의 도성이 鴨綠江과 大同江邊에 자리잡았고, 백제의 도성이 漢江과 錦江邊에 자리잡은 것과 비교하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큰 江이 없다. 따라서 신라는 都城의 位置選定이 고구려·백제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신라의 초기 도성은 『三國史記』 등에 金城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단지 현존하는 都城은 月城이 있을 뿐이며, 후대에 滿月城으로 加築된 것으로 추측된다. 신라는 초기부터 月城을 宮城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慈悲麻立干 18년(475)에 잠시 明活城으로 移居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한 곳에서만 正宮을 삼았다.

月城은 평지에서 돌출된 丘陵地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쪽의 蚊川에 의해 灣曲되어 생긴 지형이다. 그리고 이 城의 들레에 축조된 羅城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고구려와 백제에서 처럼 王京을 둘러싼 羅城이 별도로 축조되지 않고 東에는 明活山城, 西에는 西兄山城, 南에는 南山新城, 北에는 北兄山城이 있어서 주위의 산성이 수도를 방어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라는 삼국통일 이전까지는 중국식의 都城制가 채택되지 못하였다가, 통일직후인 文武王 21년(681)에 都城을 크게 이루려 하였으나, 高僧인 義相이 만류하여 중지한 사실도 있다.²⁰⁾

18) 柳成龍, 『懲愆錄』 卷15, 丙申 4月14日條.

『宣祖實錄』 卷46, 26年 癸巳 12月 庚午條.

『앞 책』(주18), 卷46, 26年 癸巳 12月 壬子條.

『앞 책』(주18), 卷59, 28年 乙未 正月條.

19) 潘永煥, 1978. 『韓國의 城郭』(世宗大王記念事業會) p.201.

고구려초기의 國內城과 丸都山城, 후기의 安鶴宮城과 大城山城의 관계와, 백제초기 平地都城과 阿且山城·南漢山城처럼 平地都城 주변에 전쟁시기에 대비한 산성을 두었던 것과 같이, 신라에서도 처음에는 月城과 南山土城²¹⁾이, 다음에 南山新城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졌으며, 이러한 도성주변의 산성이 도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수도 경주로 통하는 여러 방면의 交通要地에 산성을 축조하여 도성을 방어하였다. 이러한 산성으로는 明活山城, 西兄山城, 北兄山城, 富山城, 龍山城,²²⁾ 天生山城²³⁾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신라가 북방으로 진출하여 천연의 장벽인 小白山脈을 넘어서 백제 또는 고구려와 接境한 오늘날의 忠北 地域에는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잘 남아 있을 정도로 매우 견고하게 축조한 三年山城,²⁴⁾ 忠州山城,²⁵⁾ 溫達山城²⁶⁾ 등이 있다.

慶南 昌寧邑 동쪽에 우뚝 솟은 해발 756m의 험준한 山頂部에 있는 火旺山城은 眞興王 이전시기에 축성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산비탈의 경사가 60도나 되고 온통 바위로 뒤덮여 險固한 地勢를 갖추었으며, 정상부는 馬鞍처럼 이루어진 분지를 둘러싸고 산성을 축조하였다. 임진왜란때 義兵長 郭再祐가 이곳을 根據地로 하여 晉州로 통해 雲峰으로 進出하는 倭軍의 進路를 차단한 사실이 있으며, 부근의 鼎津를 堅守하여 倭軍의 慶尙道 侵入을 阻止한 곳이다.

報恩 三年山城은 海拔 325m의 그리 높지 않은 山上에 築城하였으나, 報恩-淸州, 報恩-俗離山, 報恩-尙州, 報恩-永同으로 통하던 古道와 백제의 首都인 公州·扶餘로도 통할 수 있는 要地에 있기 때문에 신라에서는 이 산성을 西北方面 進出의 前哨基地로서 매우 重視하였으며, 이 山城을 중심으로 하여 各方面으로 뻗은 古路邊에는 약 12km의 간격을 두고 산성들이 설측되어 있다.

신라에서 백제와 고구려로 통하는 重要交通路上에는 역시 약 12km의 거리마다 路邊의 要塞地에 山城을 축조하여 軍兵의 移動通路가 되게 하였다.²⁷⁾ 신라의 北·西面을 가로막고 있는 小白山脈을 넘나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竹嶺·鳥嶺·化嶺·秋風嶺 등 여러 交通路

20)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 第7 文武王(下)條.

“二十一年…王欲新京城 問浮屠義相 對曰…王乃止役”

『三國遺事』卷2, 紀異 第2 文虎(武)王 法敏條.

“…又欲築京師城 既令眞史 時義相法師聞之 致書報云…王於是正罷其役”

21) 朴方龍, 1985. 「都城·城址」 『韓國史論』 第15輯(國史編纂委員會).

22) 大邱大學校博物館, 1993. 『慶州龍山城地表面調查報告書』

23) 李明植·李熙敦, 1993. 『善山 天生山城 地表面調查報告書』(大邱大學校博物館).

24) 成周鐸, 1976. 「新羅三年山城研究」 『百濟研究』 第7輯.

『報恩 三年山城 基礎調查 報告書』, 1979. 報恩郡.

『三年山城 西門址 調查概報』, 1980. 報恩郡.

車勇杰, 1983. 『三年山城 -추정연못터 및 수구지 발굴조사 보고서-』(忠北大學校博物館).

25) 金顯吉·車勇杰, 1995. 『忠州山城 2次發掘調查報告書』(忠州工業專門大學博物館).

26) 車勇杰·朴泰祐, 1989. 『溫達山城地表面調查報告書』(忠北大學校湖西文化研究所).

27) 朴相尙, 1990. 「小白山脈地域의 交通路와 遺蹟」 『國史館論叢』 第16輯(國史編纂委員會).

邊에 분포한 山城遺蹟들을 통하여 볼 때 약 12km 거리마다 山城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라가 眞興王代에 咸鏡南道 지역까지 北進開拓하면서 축성한 城嶺山城,²⁸⁾ 五老里山城²⁹⁾ 주변에는 약 17km의 간격을 두고 交通上의 要地이며 戰略的으로 중요한 地點마다 山城을 築造하였다.³⁰⁾ 이것은 咸鏡道 地域이 매우 험한 산들로 이루어진 山岳地形으로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新羅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12km 간격으로 水陸交通上의 要地에 山城을 築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V. 新羅의 築城工法

신라는 『三國史記』에 의하면 B.C 37년에 金城을 축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삼국 가운데 신라가 가장 먼저 建國하고 都城을 축조하였다는 것인데, 이 기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현재 金城은 그 存在與否에 대해서 논쟁이 있으며, 아직 그 遺址도 찾지 못하고 있다. 『三國史記』 新羅本紀에는 고구려·백제에 못지않게 많은 축성기사가 보이는데, 삼국통일 이전까지 모두 30회나 나타나고 있어 고구려의 13회보다는 2배이상 많고, 백제의 36회보다는 약간 적다. 신라의 축성은 대개 高句麗, 百濟, 伽倻, 日本 등을 防禦하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존하는 遺蹟들을 통하여 볼 때 新羅城郭의 기본적 특징은 石城이 매우 많고, 土城은 낮은 丘陵地 또는 野山 위에 축조된 平山城에서만 약간 발견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木柵城은 현재 두 곳에서 그 흔적을 발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신라 역시 초기에는 木柵이나 土城이 위주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신라초기에는 土城 또는 木柵城을 이용하여 주로 河川을 낀 낮은 구릉지에 소규모로 축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신라는 토성이라도 版築土城은 적고, 城牆속에 雜石을 넣어 다지는 石心土築한 것이 많다.

신라의 石城은 3세기경부터 축조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³¹⁾ 이를 확인시켜주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三年山城이 慈悲麻立干 13년(470)에 축성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략 5세기 후반기부터는 石城이 축조되기 시작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明活山城은 慈悲麻立干 16년(473) 7월부터 同王 18년(475) 正月에 移居하기까지 무려 17個月間 修理工事를 하였다는 것을 보면, 비록 현재 石城이 그때 것이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土城을 허물고 石城을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신라의 築城工法을 현존하는 유적들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28) 한석정, 1960년 2기. 「함경남도의 유래미상의 산성들과 고분들에 대하여」 『문화유산』.

29) 池內宏, 1919. 「咸興郡内に 遺存する 古城」 『大正八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朝鮮總督府).

30) 한석정, 「앞 글」(주28), pp.62~63.

31) 李應默, 1983. 「韓國城郭의 城門建築樣式에 關한 研究」(檀國大學校大學院) p.5.

1. 木柵城

『三國史記』에 의하면 逸聖尼師今 7年(140年) 春2월에 長嶺에 木柵을 세우고 靺鞨(東濊)에 防備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³²⁾ 그러나 현재 長嶺이 江原道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될 뿐 그 遺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단지 최근의 發掘調査에 의하여 新羅의 木柵城址가 2곳에서 발견되었다. 그 하나는 新羅都城이었던 慶州市의 月城에서 발견되었고, 또 하나는 慶南 梁山의 蓴池里土城에서 발견되었다.

月城木柵은 1980년에 月城의 東北門址 부근을 발굴하다가 門址 北側地點에서 東北方向으로 뻗은 木柵柱穴을 발견하게 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이 木柵은 약 1.5m 간격으로 직경 15cm의 기둥을 세우고 옆으로 다시 原木을 차곡차곡 가로 대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발굴 조사단에서는 이것을 水路 옆에 세웠던 防柵으로 추측되나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³³⁾

蓴池里土城은 1982년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³⁴⁾ 이 토성은 山城山의 서북쪽 계곡을 중심으로 頂上部 稜線을 따라 축조하였는데 서쪽 계곡부분을 削石으로 內托한 것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土城으로 축조되었으며, 성의 둘레는 약 950m이다. 築城工法은 土城의 경우 기본적으로 版築法에 의하여 축조되었는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基礎部分에서 조사된 柱穴痕迹이다. 이 柱穴은 版築城牆 兩側面에서 城幅과 평행을 이루면서 일직선상에 1m 간격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柱穴의 크기는 직경 45cm, 생토층에서의 깊이는 48cm인데 비교적 경사도가 완만한 곳은 柱穴内部에 단단한 粘土로 메워져 있고, 경사도가 심한 곳에는 木柱를 그대로 세워둔 채로 版築을 실시하여 版築層 内部에는 木柱가 썩었기 때문에 木柱가 세워졌던 부분이 空穴로 남아 있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현상은 柱穴이 단순한 版築을 위한 木柱穴인지 아니면 土城 以前에 木柵이 있었으나 후에 改築하면서 남게된 흔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問題에 대하여 이 土城을 직접 발굴조사한 沈奉謹 교수는 그가 쓴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木柵이 있었던 흔적이라고 하였으나,³⁵⁾ 百濟 木川土城에서 이와같은 유적이 발굴된 후에 자신의 주장을 바꾸어 版築을 위한 木柱穴인것 같다고 하였다.³⁶⁾

32)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逸聖尼師今 7年條.

33) 張慶浩, 1984. 「統一新羅의 宮殿建築」, 『考古美術』 第162・163輯(韓國美術史學會) p.43.

34) 沈奉謹, 1983. 『梁山蓴池里土城』(東亞大學校博物館).

35) 沈奉謹, 『알 책』(주34), p.336.

36) 沈奉謹, 1988. 「新羅城의 築城手法 二例」 『百濟의 國家發展과 城郭』(第4回 百濟研究國際學術大會 發表要旨文,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p.67.

2. 土城

신라는 전반적으로 石城을 위주로 하여 築城하였으나, 초기에는 土城도 많이 축조하였다. 신라의 都城이었던 月城이 토성이며, 그 존재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金城과 滿月城도 토성으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중에 金城과 滿月城은 그 遺址를 찾을 수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月城은 土牆內에 雜石을 혼합하여 축조한 土城이다. 이밖에 낮은 구릉지에 축조된 平山城들은 土城으로 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후대에 石城으로 개축한 것이 많아 현존하는 石城들을 발굴조사하여 보면 원래는 土城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서는 몇곳의 대표적인 土城址를 통하여 築城工法을 살펴보고자 한다.

月城은 신라의 가장 중심적인 都城으로서 土牆에 雜石을 약간 혼합하여 축조한 土石混築城으로 되어 있으나, 雜石의 量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基本上으로는 土城이라 할 수 있다. 城牆은 東·西·北 3面과 西南面은 土石을 함께 다지고 그 맨위에 粘土를 다져서 덮었다. 城牆 높이는 일정하지 않으며 대체로 10~20m 정도 되게 쌓았으나, 南面은 蚊川이 있고 自然斷崖를 이룬 곳이어서 거의 城牆을 쌓지 않았다. 현재 지표에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에는 현재의 城牆 위에 다시 낮은 土垣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東北門址와 함께 門址 東便 10m 지점에서 城牆址를 조사하다가 城牆 바깥에서 넓직한 自然石을 몇단씩 층으로 쌓은 石壁이 있었고 맞은 편에도 같은 方法으로 쌓은 石壁이 나타났는데, 이 石壁은 조사해보니 垓字의 壁으로 판명되었다.³⁷⁾ 이것으로 보아 新羅에서는 土城이라 하더라도 城牆 밖의 垓字의 壁面은 돌로 축조하여 土城牆과 연결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南山土城은 해발 134m의 비교적 낮은 산 위에 축성된 山城이다. 城牆은 거의 무너지고 동쪽과 북쪽 일부에서 그 원형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동쪽 城牆은 內高 1.5m, 外高 5m, 上部幅 4.4m 정도이며, 城牆 전체길이는 약 1.2km이다. 축성공법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雜石이 섞인 흙으로 축조하였다.³⁸⁾ 그러나 자세한 城牆의 구조와 특징은 발굴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大邱의 達城은 역시 낮은 구릉지에 축조된 土城이다. 北쪽과 東面의 城牆은 河川에 의하여 생긴 自然斷崖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남쪽과 서쪽은 飛山洞과 內唐洞으로 연결되는 丘陵地를 庶斷하기 위해 土石混築으로 높게 城牆을 쌓았다.³⁹⁾ 전체적인 지형조건이나 성곽의 형태가 月城과 유사한 점이 많다. 城牆은 內部에 割石의 積心石을 넣고 外部에 粘土를 다져 덮었는데 城牆 윗면에, 石塊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蕪池里土城은 土城으로 축조된 부분과 石城으로 축조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築城工法은

37) 趙由典, 1990. 『月城垓字』, 文化財研究所慶州古蹟發掘調查團, pp.43~69.

38) 朴方龍, 「앞 글」(주21), p.356.

39) 尹容鎮, 1968. 「大邱達城城壁調查報告」 『考古美術』 第9號.

土城의 경우 원칙적으로 版築에 의하여 축조되었고, 서쪽 계곡의 斜面에 나타난 內托部分은 割石을 外側으로 整然하게 쌓고 안쪽으로는 흙을 채운 형태이다. 版築된 土城은 이 城郭의 東·南·北側 三面이며 그 중에서도 北側斜面이 비교적 높고 殘存狀態도 양호한 편이다. 版築은 稜線 頂上部를 최대한 이용해서 外側은 傾斜地에, 內側은 內壁과 나란하게 하였는데, 당시 20cm 정도되는 表土層을 말끔히 걷어내고 生土層上에 黑褐色 粘土를 20cm 두께로 다져 간 다음, 그 위에 다시 生土層 흙과 같은 黃褐色 山土를 20~30cm 두께로 덮어 다졌다. 이와같은 형태는 城牆 上端部까지 반복되었는데, 城幅은 4m이고 城高는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 2m 정도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축조된 版築城牆이 이 土城의 중심부가 되고, 다시 그 左右로 2m 되는 지점에서부터 城牆 윗부분까지 版築하지 않은 補土로 비스듬히 메웠다. 이 兩側補土 上端部는 城高와 나란하면서 비스듬한 傾斜角을 이루었다. 아마 축조당시의 城牆 斷面은 梯形이었을 것이다.⁴⁰⁾

3. 石城

신라의 石城을 특히 많이 축조하였다. 신라의 성곽은 전반적으로 고구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石城의 築造工法 또한 고구려와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신라의 三年山城에서 보듯이 石城의 축조기술이 매우 정교하고 치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삼국의 수많은 성곽 가운데 가장 많은 工役과 精誠을 들여 쌓고, 가장 완벽하게 築城한 것이 신라의 三年山城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築城術의 발달은 곧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된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차례 학술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城牆의 구조가 밝혀진바 있는 三年山城을 중심으로 하여 新羅時代 石城의 築造工法을 살펴보려고 한다.

三年山城은 城牆의 높이가 13~20m나 되며 城幅은 5~8m이다. 城石은 가로 50~80cm 세로 12~17cm 크기인데, 築城하기가 비교적 容易한 粘板岩系의 납작납작한 板石으로 축조하였다. 最下端의 基礎部分을 整地한 다음 한층한층씩 一定區間의 城牆部를 동시에 쌓아 올렸는데, 外壁面은 整然하게 쌓고 내부에는 흙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石材만으로 채워넣었다. 城牆의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板石을 한층은 가로로 놓고, 다음 한층은 세로로 놓아 “井”字式으로 서로 엮물려 쌓았다. 이러한 工法은 上部의 하중을 하부에 균등하게 퍼지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며, 城牆外部에 드러난 城石의 앞면이 내측보다 폭이 3배 정도 넓고, 두께도 外壁面쪽이 더 두껍다. 城牆을 쌓으면서 생기는 작은 틈에는 작은 쇠기돌로 메꾸어, 壁面 전체가 거의 빈틈이 없이 꼭 채워졌다. 이렇게 정성을 들인 築城工法은 얇은 板石이 오랜 세월 동안 부서지지 않고 城牆이 변함없이 保存될 수 있게 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그리

40) 沈奉謹, 1983. 『梁山蓴池里土城』(東亞大學校博物館).

고 上部의 荷重을 생각해서 성의 네 귀퉁이에는 基礎部分을 四層階段으로 만들었다. 城牆 築造方法도 地勢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동쪽과 서쪽은 片築으로 하였으나 남쪽과 북쪽은 稜線의 지세가 낮은 관계로 인하여 夾築으로 하였다.

城牆 基礎部分의 처리는 발굴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많은 荷重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城牆의 下部가 1~1.5m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는 高句麗城의 基礎部分에서 보이는 補築基壇처럼 기초부분을 城牆보다 더 넓게 하여 上部의 荷重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城牆의 바깥쪽 경사가 급한 곳에 더욱 필요하였을 것이며, 실제로 이 산성에서도 그러하다.

신라의 산성이 대부분 自然石 또는 長方形으로 다듬은 城石을 이용하여 外面만을 돌로 쌓은 外夾築內托式 즉 片築으로 축조되는데 반하여, 이 三年山城은 납작한 板石들을 차곡차곡 쌓아 地勢에 따라 內托法으로 쌓기도 하고 또는 垣牆처럼 보이게 하는 夾築工法으로 쌓기도 하였다. 片築城牆은 주로 山稜線의 밖으로 기울어진 傾斜面의 下部에 基礎部를 整地한 후 石壁을 쌓기 시작하여, 外壁이 어느 정도의 높이에 이르면 안쪽에서도 동시에 城牆을 쌓아 올리는 工法인데, 이러한 경우 城牆과 山稜線 사이에 생긴 凹部에는 雜石이나 흙을 채워 윗면을 평평하게 하였다. 이는 城牆이 마치 높게 쌓아올린 石壇과 같은 구실을 하게 되어서, 城基礎를 내어 잡은 만큼 城內部의 면적이 넓어지게 된다. 夾築城牆은 山稜線의 上部 또는 산봉우리 위에 직접 城牆을 쌓을 경우와 溪谷을 橫斷하여 築城할 경우에 채택되었다.⁴¹⁾

明活山城은 石城과 土城으로 이루어진 山城이다. 현재 城牆은 대부분이 무너졌는데, 북서쪽 城牆이 現高 1.1m, 幅 3m, 길이 8m가 남아 있으며, 북쪽 城牆은 現高 1.8m, 幅 3.7m, 길이 3m 정도 남아있다. 城石은 가로 25~55cm 세로 20~45cm 크기의 花崗石材를 약간 加工하였는데 그리 정연하지는 않으나 대충 層을 이루면서 內·外壁面을 쌓고 내부에는 土砂가 전혀 없는 雜石만으로 채워넣었다.⁴²⁾

富山城의 築城工法은 지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략 가로 30~40cm 세로 20~35cm 크기의 加工하지 않은 安山岩 石材로 內·外壁을 축조하고 內部에 雜石을 채우는 夾築法을 채택하였다.

龜山城은 둘레가 350m에 불과한 小形城郭이다. 城牆은 生土層을 약 1m 정도 파내어 基礎部를 만든 다음 그 위에 거의 수직되게 城牆을 쌓아올리는 夾築工法을 취하고 있는데, 內壁의 경우 잘 남아 있는 부분은 높이가 5m나 되는 곳도 있다. 城牆築造에 사용된 石材는 花崗岩 또는 粘板岩系의 山石을 약간 加工하여 長方形으로 만든 뒤 內·外壁을 차곡차곡 쌓아올렸고, 城牆內部는 人頭大의 自然石을 그대로 이용하여 차곡차곡 눕혀서 쌓았다. 城幅은 基礎部分이 6m, 上部가 5.5m이며, 內·外壁이 中心을 향하여 비스듬히 약간의 경사를

41) 成周鐸, 1976. 『新羅三年山城研究』 『百濟研究』 第7輯.

42) 李元根, 1981. 『三國時代城郭研究』 (檀國大學校大學院), pp.364~369.

이루도록 축조되었다.⁴³⁾

龍山城의 城牆은 거의 수직에 가깝고 지형에 따라 片築 또는 夾築으로 築城하였다. 城石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山石을 切取하여 長臺石으로 基礎를 만들고 그 위에 다시 거칠게 다듬은 割石으로 外面을 똑바르게 하여 차곡차곡 올려쌓았으며, 큰 城石들 사이의 틈에는 켜기돌을 끼워넣어 城牆을 튼튼하게 하였다. 現存하는 城牆의 殘存部分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전반적인 규모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城의 높이는 1.5~2.5m 정도이다. 城牆의 내부에는 雜石 및 흙으로 채워넣었다.⁴⁴⁾

天生山城은 外城과 內城이 모두 북서쪽의 自然絶壁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남동쪽은 8~9部 稜線을 따라 거의 수평되게 축조하였다. 外城은 계곡 등 경사가 급한 일부구간에는 1~2m 높이로 작은 自然割石을 8~12段으로 쌓아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계곡으로 적이 침투하는 것을 防禦할 수 있게 하였다. 東北部의 일부구간에는 現高 1~2m 上面幅 2~4m의 夾築石壁도 남아있으나, 북서쪽의 自然絶벽에는 城牆을 축조하지 않고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削土하여 축조한 土城으로 되어 있다.

內城은 지형에 따라 夾築과 片築工法이 번갈아 사용되었으며, 북서쪽의 自然絶壁上에는 대부분 城을 쌓지 않았는데 이는 外城에서와 같이 지형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계곡이 있는 부분에는 구간별로 石城을 축조하여 튼튼히 보강하였다.

城牆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山石을 長方形으로 약간 다듬어 사용하였다. 가능한 대로 基礎石은 長方形의 大石을 쌓고 위로 올라 갈수록 작은 돌을 쌓아 전체적인 조화미를 이루었다. 일부 城牆 사이사이의 공간에는 작은 돌을 끼워넣어 틈을 메꾸었다. 특히, 城牆에 쌓은 城石을 橫으로 가지런히 놓아 수평이 되게 하였으며, 外壁은 면이 반듯하다. 城牆內部에는 雜石을 채워넣어 內壁이 없는 片築工法으로 축조하였다.⁴⁵⁾

忠州山城은 현재 대부분 外壁만을 城石으로 整然하게 쌓고 內側은 壁이 없고 內部의 경사면을 削土하여 地面이 평평하게 內托하는 방법으로 축조한 상태처럼 남아 있는데, 발굴조사한 결과 다양한 방법으로 축성되었음이 밝혀졌다. 우선 山稜線部를 돌아가면서 城牆을 쌓아올린 부분에서는 外側下端에 基礎를 다지지 않고 自然岩盤 또는 岩盤腐植層 위에 직접 城牆을 쌓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外壁과 함께 內壁까지 분명하게 축조한 夾築工法으로 축성하였다. 城牆 最下部의 폭은 11m이며, 城牆上部의 폭은 6.5m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부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동쪽 계곡부근의 城牆은 外側에 3.8m 이상의 補築基壇을 만들고, 그 위에 1m 이상 안쪽으로 들어서 城牆을 축조하였다. 山稜線의 傾斜面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되 內壁面은 “L”形으로 깎아내고 대략 外側壁面의 中間部位부터 그 위로는 外壁과

43) 沈奉謹, 1984. 『鎭海龜山城址』(東亞大學校博物館).

44) 大邱大學校博物館, 1993. 『大邱龍山城地表面調查報告書』.

45) 李明植·李熙敦, 1993. 『善山天生山城地表面調查報告書』(大邱大學校博物館).

함께 內壁까지를 함께 쌓은 夾築工法으로 쌓아 올리었다. 城牆의 上部幅은 6.5m이고 城牆高度 6.5m를 기준으로 삼았다.

城牆의 上端部는 外壁에서 內壁까지 板石을 놓혀서 차곡차곡 쌓아 올렸는데, 이 板石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內壁을 향해 약간의 경사가 지도록 하였다. 이것은 城牆이 밖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한 것이다.⁴⁶⁾

溫達山城은 三年山城과 함께 築城技術이 뛰어나며, 城牆이 잘 남아 있는 山城으로서 유명하다. 溫達山城의 城牆은 內·外壁을 동시에 올려쌓은 夾築城으로 되어 있으며, 城牆이 山稜線部를 통과하거나 계곡을 통과하는 지점에서는 內外夾築하였는지 不明이다.

城의 基礎部는 기본적으로 岩盤을 대충 다듬어 평탄하게 정리한 후 직접 그 위에 石牆을 쌓아올렸는데 일부분에서는 岩盤部를 補強하기 위하여 階段狀으로 補築基壇을 쌓은 곳이 있어서, 高句麗의 山城에서 보이는 築城工法과 類似하다. 城牆은 비교적 납작한 長方形의 석재를 수평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렸는데,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外壁 城石 사이에 작은 틈바구니가 생기면 작고 납작한 썰기들을 채워넣어 빈틈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城牆의 斷面에서 보여주는 경사도는 축성당시의 모습 그대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매우 안정된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壁面의 경사도는 三年山城·忠州山城과 매우 비슷하다.

薔薇山城은 長方形으로 다듬은 割石을 정연하게 쌓아올렸는데, 서쪽과 서남쪽에 원래의 웅장한 石牆이 남아 있다. 높이는 4~6m이고 아랫돌보다 윗돌을 조금씩 안으로 들여 쌓아 안정감이 있도록 하였다. 城牆의 대부분은 산의 傾斜面을 최대한 이용하였으나, 城牆 안쪽이 山稜線과 평행이 되도록 축조하였다.

城牆이 무너진 부분을 통하여 夾築과 片築 등 두가지 工法으로 築城하였음이 확인되었다. 夾築으로 나타난 부분은 內·外壁과 함께 壁心部가 동시에 축조되어 土城의 版築工法처럼 板石들이 수평을 이루며 놓여졌다. 壁面은 城石의 반듯한 면을 外側으로 정연하게 쌓고, 城石의 뾰족한 면을 모두 안쪽으로 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片築工法으로 쌓은 부분은 外壁面만을 비교적 크고 규격에 맞는 석재를 사용하여 축조하고 內側에는 雜石을 채워넣었다. 이러한 築城工法은 三國初期에 石築山城을 축조하는데 사용되었으며, 후반기에도 성행하였다. 城石의 크기도 上下의 石材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삼국후반기의 石城들을 살펴보면 아랫쪽은 큰돌을 사용하였고, 위로 오르면서 작은돌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薔薇山城에서는 上下의 石材가 모두 같은 크기로 되어있다. 城牆의 基礎部分에는 補築基壇을 축조하지 않고 地面 또는 岩盤을 다듬은 후 그 위에 곧바로 石壁을 쌓아올렸다. 이 城에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5世紀後半 이후의 發展된 新羅山城들과의 차이점이 발견된다.⁴⁷⁾

46) 金顯吉·車勇杰, 1986. 『忠州山城吳直洞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忠州工業專門大學博物館).

金顯吉·車勇杰, 1995. 『忠州山城2次發掘調查報告書』(忠州工業專門大學博物館).

47) 車勇杰, 1992. 『中原薔薇山城』(忠北大學校博物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新羅城郭의 가장 큰 특징은 石城에서 補築基壇이 많이 축조되었다는 사실이다. 고구려에서 창안된 補築基壇 形式은, 土城이 주류를 이루는 百濟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나, 石城이 주류를 이루는 신라에서는 補築基壇이 한층 발전되고 일반화되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新羅의 城郭에서 補築基壇이 확인된 遺蹟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三年山城, 明活山城, 溫達山城, 忠州山城, 龜山城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최근에 발굴한 慶南 咸安의 城山山城과 京畿道 楊州의 大母山城, 그리고 忠北 丹陽의 赤城에서도 城牆의 基礎部分에 補築基壇壁을 축조한 것이 발견되었다.

V. 맺음말

『三國史記』 新羅本紀에는 47回 74件的 축성기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삼국통일 이전의 것은 30回 42件이며, 都城과 관련된 것이 2回이고 나머지는 모두 山城과 관련되어 있다. 이 밖에 『三國史記』에는 수많은 城郭의 名稱들과 관련기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개는 都城防衛를 위한 것과 首都의 偏在性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邊方守備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城役을 하였던 시기는 5세기부터 7세기로 나타나 있어 주목된다. 이것은 신라가 삼국시대 후반으로 가면서 삼국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신라는 건국초기부터 성곽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주로 도성축조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국경지역과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산성을 쌓는데 역점을 두었다. 신라는 1천년간이나 都邑을 경주에만 두었기 때문에 도성은 경주에서만 축조되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도성은 단지 月城뿐이다. 그러나 『三國史記』에 金城과 滿月城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수도에는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羅城을 축조하지 않고 대신에 경주를 포위한 각 방면에 明活山城, 西兄山城, 南山新城, 北兄山城을 축조하여 도성을 보호하였으며, 그 외곽의 교통요지에는 富山城, 龍山城, 天生山城 등과 같은 天險의 山城을 축조하여 도성을 철저히 방어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교통로상에는 대략 12km의 거리를 두고 산성을 축조하여 軍兵의 移動通路가 되게 하였다.

신라의 축성술은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慈悲麻立干 13년(470)에 三年山城을 축조하고 이어서 忠州山城, 溫達山城을 축조하는 등 국가적인 大役事을 이루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城牆 기초부분의 補築基壇이 일반화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축성술이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신라의 성곽은 그 이후의 축성기술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韓國式城郭으로 완성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